칼 럼

김 윤 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과 영광굴비, 한빛원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가마미해수욕장이 7월 13일 개장되었다. 가마미해수욕장은 영광 9경중 하나에 속하는 영광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1km의 드넓은 반달모양의 백사장과 낙조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호남 3대 해수욕장으로 뽑힐 만큼 명성이 높은 곳이다.

영광군에서도 최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과 카라반 등 새로운 체험공간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야영장 데크시설 26면을 완공하여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 손님맞이에 나섰다. 이러한 시설 보완뿐만 아니라 8월 4일부터 5일까지 해변 가요제를 개최하고, 장어잡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군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에 두고, 해양경찰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체 안전관리요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 없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각종 편의시설 보완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이 있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친절 생활화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로 올해 방문한 피서객들이 내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나는 일찍 고향을 떠나서 타관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향민, 향우이지만 항상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

내 어릴 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여름방학만 되면 가마미해수욕장에 가서 수영하고 노는 일이 기다려지는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다. 여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부터 '영광원전' 이라는 이름이 신문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영광원전 제어봉 고장' 이라는 기사가 중앙 일간지 사회면 '고바우 영감' 같은 시사만화 바로 옆에 자주 나타났다.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도 되고 화도 나서 영광신문에 '영광원전은 이름부터 바꾸어야 한다' 등 칼럼을 여러 차례 보내서 게재되기도 했다.

영광하면 '영광굴비' 가 유명한데, 이제는 영광하면 '영광원전' 이 더 유명하게 되었다고 개탄하는 내용이다. 고리원전이라고 부르면 어느 고장인지 잘 모른다. 제어봉 고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최대 원전단지가 되어 버린 영광원자력단지에 핵폐기물 저장고까지 설치한다고 추진되었다. 군민들도 두 편으로 갈라져서 갈등과 대결을 벌이는 비극도 연출되었다.

나는 '영광 핵 폐기장 유치는 영광을 팔아먹는 행위이다' 는 다소 과격한 칼럼도 영광신문에 투고했다. 군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결을 보면서,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선출시켜준 영광 출신 국회의원과 영광군수. 도의원, 군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꿀 먹은 벙어리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영광에 설치하려던 핵 폐기장은 전북 부안으로 갈려다가 정균환 집권여당 원내대표까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가세한 가두시위 등으로 좌절하고, 경주로 갔다. 요사이 한빛원전으로 이름이 바뀐 영광원전 제어봉이 고장났는데, 무자격자가 수리하고, 엄청난 고온을 조절하지도 않고 위험 속에서 수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은 거짓 발표나 하고 영광군민을 속이는 일이 보도되고 있다.

민(民)이고 관(官)이고 군(軍)이고를 불문하고 창피하고 냄새나고 난처하고 책임 추궁당할 일은 쉬쉬하면서 빨리 덮어버리고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한빛원전 제어봉 고장으로 영광군민들이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적극 지지하고 성원한다. '제어봉 고장' 이라는 언론 보도를 본지가 수 십년 전인데, 언제까지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을 보아야만 하는가.

고려시대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유명한 진상품 영광굴비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는 가짜 영광굴비에 시달린다. 영광원전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명성을 회복한 영광굴비가 자랑스럽다. 영광은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대종사가 원불교를 창시한 원불교 성지이다. 영광 법성포는 백제불교가 최초로 도래한 불교의 역사적인 성지이기도 하다.

노령산맥 뻗어 내린 태청산(太靑山) 편백나무 숲 푸르게 짙어갈 때, 법성포 앞 칠산바다 조기떼들 살쪄가는 신령스러운 땅, 천년의 빛 영광(靈光)에 영원히 영광(榮光) 있으리라.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휴가, 차량안전 확인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름휴가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차량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곳이 있는지 몇 가지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타이어 점검이다. 여름에는 갑작스럽게 비를 만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상시 보다 공기압을 높여 타이어의 배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좋다. 타이어의 마모상태가 심하다면 새 타이어로 교체한다.

둘째, 에어컨 점검이다. 에어컨을 켰는데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냉매를 확인하고, 심한악취가 난다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 필터로 교환한다.

셋째, 브레이크 점검이다. 브레이크는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주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밀리는 느낌이 들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면 전문 정비소의 점검을 받는다.

넷째, 와이퍼 점검이다. 휴가 중 장마나 소나기를 갑작스럽게 만나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야확보가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와이퍼를 작동해 유리 표면의 얼룩이나 이물질이 잘 닦이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냉각수 점검이다. 무더위에 자동차의 엔진 냉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엔진과열증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양은 적정한지 확인하고 부족할 때는 바로 보충한다.

여섯째, 엔진오일 점검이다. 엔진오일은 차량의 운전습관, 주행거리 등에 따라 교환주기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열악한 환경에서는 6개월에 1회 정도 교환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차량내부 인화성물질 확인이다. 무더운 날 차량을 건물외부에 주차하면 내부온도는 70도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때 차내에 라이터나 스프레이, 전자제품 등의 방치는 폭발이나 제품변형의 원인이 되므로 특별히 주의한다.

임영진 / 화순 능주119안전센터

社 說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클럽 내 불법 증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죽고 25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임에 틀림없다. 차후에라도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우리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했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적어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번 불상사를 인재로 칭한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불러온 참화라는 뜻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난 대응·건축·식품안전·소방안전 등 시·구별 관련 부서를 모아 '불법건축물 특별 대책단' 을 구성한다.

대책단은 지난 30일부터 열하루 동안 1단계 현장 점검으로 5개 구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 또는 클럽 유사시설 81곳을 점검한다.

내달에는 복층 구조물이나 발코니를 증축한 다중이용시설 100곳을 살펴보는 2단계 점검을 시행한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천300여곳을 살펴볼 계획이다.

대책단은 이번에 사고가 난 서구 한 클럽처럼 구조물 무단 증축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음식점으로 사업 신고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위법 영업 행위도 적발 대상이다.

광주시가 3단계 특별 점검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광주시의 이같은 조치가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 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 집 인·편 집 국 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